

김 지사, 방미 중 전북대표 세일즈맨 자처

CES 현장서 영어로 전북 기업과 전북특자도 소개 등 활약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고 있는 CES(International Consumer Electronics Show, 세계가전전시회)를 방문중인 김관영 도지사가 현장에서 능통한 영어를 구사하며 전북제품 홍보맨으로 맹

활약하고 있다.

김 지사는 10일(현지시간) CES 구글 부스를 방문, 지메일과 시를 결합한 업무혁신 프로그램에 대해 구글 관계자들과 통역없이 영어로 대화하고 있다.

보며 큰 관심을 나타냈다.

김 지사는 현장 직원에게 "Is this technology available now? When will the Korean service start? What's the difference from the current service? Is there an example of using it in the public sector?" 등 궁금한 점을 직접 영어로 물으며 신기술에 대해 청취했다.

이날 오전,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장단들과의 조찬 자리에서는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가며 특자도 출범 소식을 알렸다.

김 지사는 "전북특자도가 곧 출범한다. 중앙부처 권한 넘겨받아 자치권 확보하는데 제주가 17년 전 자치도 출범 후 인구가 20% 늘었다. 전북은 대한민국에 적용할 수 있는 특례를 테스트하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취임 후 공무원 500명과 기업의 1대 1 매칭, 1주 1콜(call), 한달 1회 방문을 해보니 기업 반응이 너무 좋아서 14개 시군에 사례를 확대하고 있다"며 친기업 환경조성에 전력을 다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전날에도 CES에 첫 개설된 '전북관'에 들러, 전북도내 8개 업체 관계자를 만나 격려하고 각 부스를 돌면서 AI와 자율주행 등 디지털 미래 핵심 산업군에 대한 벤치마킹에 구슬땀을 흘렸다.

특히 유전자 등을 활용한 돼지저울 업체와 화물차 등의 이동상황 추적 기술 관련 업체, 양봉관련 신기술을 가진 업체 등등에게는 자신이 알고 있는 전 세계 전문가와 기업체를 연결해주면서 세일즈 도지사로서의 능력을 과시했다.



10일(현지시간) 김관영 도지사가 미국 라스베가스 세계가전전시회(CES) 구글(Google) 부스를 방문해 지메일과 시를 결합한 업무혁신 프로그램 등에 대해 구글 관계자들과 통역없이 영어로 대화하고 있다.

스마트 농업 기술 아프리카 등에 전수

전북국제협력진흥원, 'KOICA 글로벌연수' 2회 연속 선정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이하 진흥원)은 'KOICA 글로벌연수' 2회 연속 선정으로 아시아에 이어 아프리카, 중남미 국가에 전북의 스마트 농업 기술을 전수한다.

진흥원은 '2024년도 KOICA 글로벌연수' (2024~26 아프리카 및 중남미 7개국 기후스마트농업 역량 강화 연수)에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22년부터 시작한 몽골(고비알타이주) 스마트 농업 KOICA 글로벌연수에 이어, 아프리카와 중남미까지 새로운 국제협력의 지평을 넓히게 되었다.

이번 '아프리카·중남미 스마트농업 연수'는 7개국(케냐, 모잠비크, 르완다, 말라위, 도미니카, 온두라스, 벨리즈)의 농업환경 개선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성 증대를 위한 다양한 교육과 견학을 진행할 예정이다.

진흥원은 이번 신규 사업 선정에 따라 총 10억원 상당의 국비를 확보하게 되었으며, 올해는 몽골과 아프리카 및 중남미 7개국의 농업 공무원 40여명이 전북을 방문하게 된다.

이에 더욱 박차를 가해, 전북의 신흥교류 국가인 인도네시아 대상 스마트 농업 연수 사업을 KOICA에 신청하여 현재 1차 심의를 통과한 상태로 앞으로도 전북의 자원을 수출하는 ODA 사업을 적극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진흥원은 'KOICA 글로벌연수' 뿐만 아니라 자체 사업으로 카자흐스탄 크질오르다주 농업기술 연수와 베트남 다락성 자동차 기술 연수를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여 전북의 주력산업을 활용한 해외 기술연수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김대식 진흥원장은 "연수사업은 親近복인사 양성은 물론, 전북의 기술과 정책을 수출하는 고도화된 국제교류의 방식으로, 특히 올해 총 10개국(몽골, 케냐, 모잠비크, 르완다, 말라위, 온두라스, 도미니카, 벨리즈, 베트남, 카자흐스탄) 대상 연수사업 운영은 곧 출범할 전북특별자치도의 국제적 위상을 더욱 제고할 뿐만 아니라 도내 기업 및 단체의 해외진출 발판을 다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도 신규 공공건축물... 전북특자도 '랜드마크'로 만든다

대표도서관·서예비엔날레관·문학예술인회관 등 지역명소 구상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전북도가 도내에 건립중인 공공건축물을 '랜드마크화' 하는 전략을 모색한다.

현재 조성중이거나 계획인 세계서예비엔날레관, 전북대표도서관 등 공공건축물을 서울의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나 노들섬처럼 랜드마크화할 계획이다.

건축물 조성시 심미성 등을 최대한 살리고 지역의 상징적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해 설계단계부터 국내외 최고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키로 했다.

다. 현재 도가 대상으로 삼는 건물은 세계서예비엔날레관, 전북대표도서관, 전북도립국악원, 전북문학예술인회관 등이다.

세계서예비엔날레관은 총 324억원을 투입 조성하며, 조성 후 세계서예비엔날레 행사의 주무대가 될 것이며, 베틀 모양의 전체적인 형상에 한지를 쌓아올린 모습으로 서예를 상징하는 요소들 기반으로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대표도서관은 덕진구 정동 혁신

도시 기지제 문화공원 일원에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1만제곱미터 규모로 동서양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보편적 이미지를 반영하여 지역주민의 지식정보 공유, 커뮤니티 형성 및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전북문학예술인회관은 덕진공원 인근 전북문화관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1층, 연면적 2,900제곱미터 규모로 주변환경과 상생을 위해 높이를 낮추고 경계가 없는 화합의 의미를 담아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발주를 준비 중이다.

현 덕진공원 국악원 자리에 새로 건

축하고 있는 도립국악원도 도시공원 지역으로 건축행위가 제한돼 어려움이 많지만 외벽에 전통문양살과 가야금의 현을 표현하는 설계를 반영해 최대한 주변 호수와 조화를 이루도록 조성하고 있다. 도는 이들 대형 공공건축물 디자인 강화를 위해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긴밀히 해 나가기로 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현재 도내에 짓거나 조성계획인 공공건축물의 심미성을 최대한 살려 랜드마크와 해양 특별자치도 출범을 계기로 국내외 관광객들을 더 끌어 모을수 있는 유인책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도, 2024년 산림소득사업 추진 박차

10개 사업 144억원 투자

전북도가 단기소득 임산물의 규모화·현대화 지원으로 안정적인 소득 창출하기 위해 2024년 산림소득분야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전북은 산림소득분야 총사업비 144억원으로 소액사업과 공모사업 2개 분야, 총 10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림소득분야 소액사업으로 2024년에 6개 사업, 총사업비 108억원을 투자해 △생산지반조성, △환경임산물재배관리, △산림작물생산단지,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 △임산물 상품화 지원, △유통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산림소득분야 소액사업은 다음연도 사업에 대한 신청을 당해연도 상반기에 받고, 신청시기도 시·군별로 상이하므로 사업대상지 소재 각 시·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이나 해당 시·군 산림부서에 확인해야 한다.

또한, 산림소득분야 공모사업으로 2024년에는 4개 사업, 36억원을 투자해 추진할 계획으로 △산림작물생산단지 4개소, △산림복합경영단지 3개

소, △가공산업활성화사업 1개소, △산지종합유통센터 조성사업 1개소는 2022~2023년에 선정된 사업으로 올해 예산이 배정되어 조성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산림청의 주요 정책들이 개선돼 많은 임업인들이 편의를 제공하게 되었다.

먼저 임업인들이 임산물 생산 작업을 개설하는 경우 위험구간을 포장하는 비용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고, 임업인의 요구가 컸던 관리사(管理舍)도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

이들러 임산물 생산자가 사업지 관할 지자체 내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각종 지원 혜택을 동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차별금지 규정도 신설됐고, 육림업 종사자에게도 굴착기 지원이 추가되어 현장 임업경영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강해원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올해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은 작년 119억원 대비 25억원 증액해 144억원 확보하여 전북 임업 관련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도 "자동차세 1월에 연납하고 할인 받으세요"

전북도가 2024년도 자동차세의 1월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전하며 도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나누어 각각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연납 신청기간은 1년에 총 4회(1월, 3월, 6월, 9월)로 1월에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4.6%(1월, 3월, 6월, 9월에는 각각 3.8%, 2.5%, 1.3%)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시·군 세무부서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와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으로도 가능하다.

기존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던 차량은 소유권의 변동이 없을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도 1월 중에 세액이 공제된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올해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과 세

금 납부 기한은 1월 31일까지로 동일하지만, 국토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작업 등으로 2024년 1월 17일 오후 6시부터 1월 21일 오후 10시까지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신청이 제한된다.

세금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 CD/ATM,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 위택스?스마트 앱(스마트 위택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김재훈 기자

부안군 공고 제2024-82호

공 고

위도해수욕장 관광지 조성계획(변경) 승인을 위해 「관광진흥법, 제60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준용) 규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지역지구 등의 지정 등)에 의거 토지, 건축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아래 내용을 보여 의견을 듣고자 공고하오니 본 위도해수욕장 관광지 조성계획(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승인신청의 요지

- 가. 위도해수욕장 관광지 지정(변경)
1) 관광지명: 위도해수욕장 관광지
2) 위 치: 부안군 위도면 진리1리
3) 관광지 지정 면적: 1,448,077㎡

나. 위도해수욕장 관광지 조성계획(변경)

- 1) 면 적: 1,448,077㎡
2) 사업기간: 1992. ~ 2015. 12. 31
3) 조성계획(변경) 총괄 조서

구분	기	원	변	변	구	비
	면적	면적	경	경	상	고
총 계	1,448,077	-	1,448,077	100.0		
공공·민간						
공공	31,685	증	3,485	32,170	21.7	• 관비사부소, 도로(변경승가), 주차장, 화장실(1개소, 신설), 하수처리장, 취수장
민간	17,717	감	1,185	17,532	11.8	• 가족호텔(변경승가), 별관(변경승가)
합계	3,954	-	3,954	2.7		• 상가
농림	45,293	감	1,300	44,993	30.3	
문화·관광	4,217	-	4,217	2.8		• 다목적운동장
농림·문화·관광	41,036	감	1,300	40,736	27.5	• 연수실, 조정류코스, 전망대, 공연장, 야영장(변경승가)
기타	49,468	-	49,468	33.4		• 녹지, 스텝드

2. 열람의 일시 및 장소

가. 열람의 일시: 2024. 01. ~ 2024. 01. (계제 익일로부터 14일간)

나. 열람의 장소:

3. 관광지 조성계획 결정(변경)도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서 - 계제생략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 관광과(063-580-4738)로 문의하시시 바랍니다.

2024년 1월 12일 부안군 수